

#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응키 위한 전자업계 정보화 실태 조사

본회 전자상거래팀

본회는 전자업계의 정보화를 구축 및 향후 다가올 e-biz 환경에의 인식과 대응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전자업계가 준비해야할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6월 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0일간에 걸쳐 대·중소 전자업계 207개사를 대상으로 「전자업계 정보화 실태」를 조사하였다.

## 1. 응답업체 현황

### 기업 규모

동 조사에 응답한 전자업계는 207개사로서 대기업이 30개사(14%), 중견기업 27개사(13%), 중소기업이 150개사(73%)로 분포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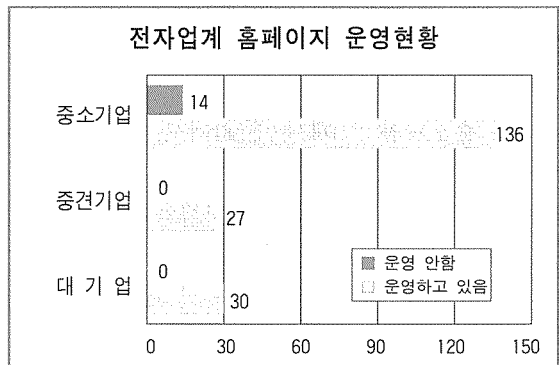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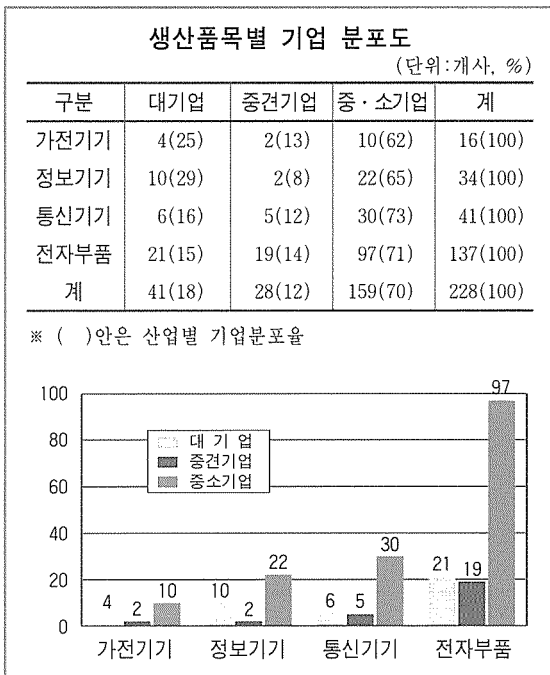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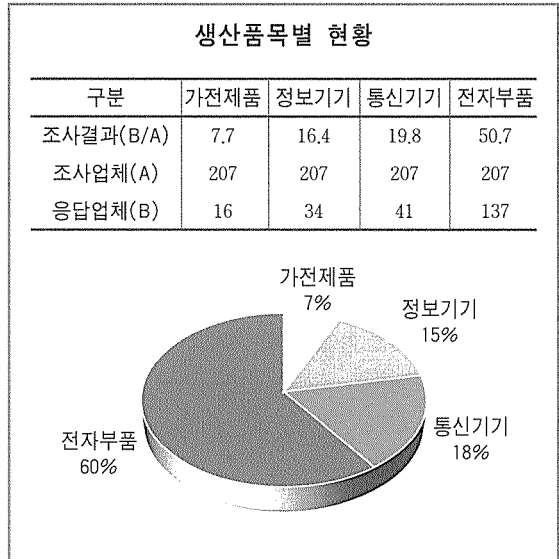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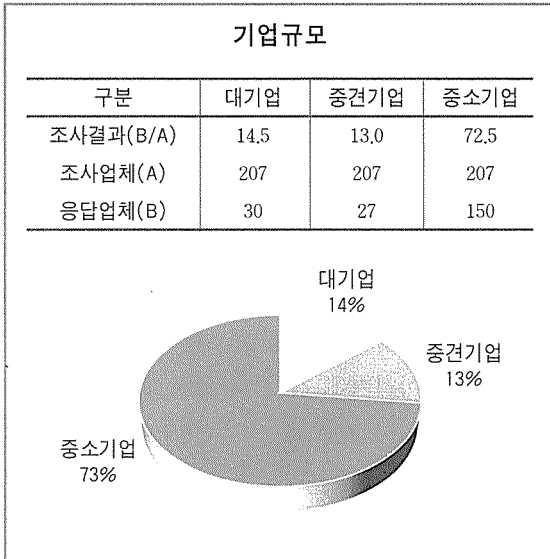
중견/중소기업이 177개사로 본 조사의 전체 86%를 차지하고 있다.

### 기업별 생산품목

동 조사 응답한 207개사의 생산품목을 조사한

결과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16개사(8%), 정보기기 35개사(17%), 통신기기 41개사(20%), 전자부품 123개사(59%)로 나타났다.

또한, 생산품목별 기업 분포도를 보면 가전기기(16개사)에서 대기업이 25%(4개사), 중견기업이 13%(2개사) 중소기업이 10개사(62%)로 나타났다으며, 정보기기는 대기업이 10개사(29%), 중견기업이 2개사(8%), 중소기업이 22개사(65%). 통신기기는 대기업이 6개사(16%), 중견기업이 5개사(12%), 중소기업이 30개사(73%),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21개사(15%), 중견기업이 19개사(14%), 중소기업이 159개사(71%)로 나타났다.



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분포를 보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전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(150개사) 중 운영하는 기업은 91%인 136개사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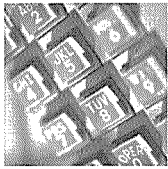
## 2. 전자업계의 정보화 현황

### 홈페이지 운영여부

응답업체 207개사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총 193개사(93%)이며, 홈페이지를 운영치 않는 기업은 14개사(7%)로 나타났다.

### 전산실 운영여부

응답업체 207개사 중 대기업 30개사 및 중견기업 27개사(아웃소싱 포함)100%가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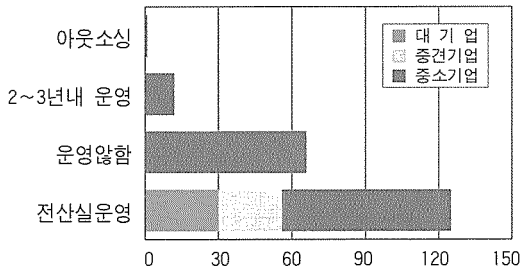
## 전자산업동향 조사보고서

### 전자업계 전산실 운영현황

(단위:개사, %)

구분	전산실 운영	전산실 운영치 않음		아웃소싱	계
			2~3년내 운영예정		
대기업	30(100)	-	-	-	30
중견기업	26(96.3)	-	-	1(3.7)	27
중소기업	69(46)	81(54)	15(18.5)	-	150

※ ( )안은 산업별 기업분포율



이중 중소기업 150개사 중 81개사, 54%가 전산실을 운영치 않고 있으며, 운영치 않는 81개사 중 15개사 18.5%가 2~3년내 전산실을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따라서,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 및 e-Biz를 가속화 하기 위해서는 전산실 운영(위탁운영 포함)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### 전자업계가 보유한 H/W현황

전자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H/W의 종류는 대형컴퓨터가 15.5%, 중형컴퓨터 25.6%, 미니컴퓨터

### 전자업계가 보유한 H/W현황

(단위:개사, %)

구분	대형 컴퓨터	중형 컴퓨터	미니 컴퓨터	워크 스테이션	개인 컴퓨터(PC)
조사결과(B/A)	15.5	25.6	9.2	19.3	38.2
조사업체(A)	207	207	207	207	207
응답업체(B)	32	53	19	40	79

9.2%, 워크스테이션 19.3%, 개인컴퓨터(PC)는 38.2%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.

### 전자업계 전산실 인력현황

전자업계의 전산실 인원현황(126개사 대상)은 대기업중 20명 이상의 전산요원을 둔 기업이 14개사(63%)로 가장 많으며, 중견기업에서는 6명 이상에서 10명이하까지 16개사(60%)이며, 중소기업에서는 3명 이하가 51개사(74%)로 나타났으며 3명 이하의 전산요원을 둔 기업(대부분 중소기업)이 58개사(46%)로 현저히 전산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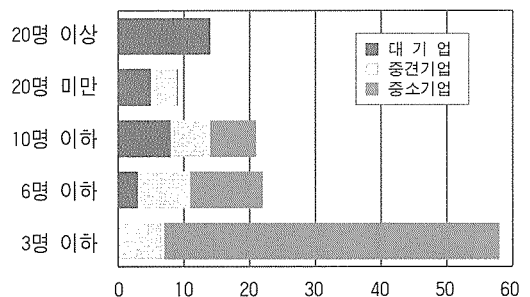
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자업계 126개사 중 36%가 10명 이상의 전산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, 6명 이하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64%로 나타났다.

특히, 3명 이하의 전산인력을 갖춘 기업도 46%이지만 이는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 전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### 전자업계 전산실 인력현황

(단위:개사, %)

구분	3명이하	6명이하	10명이하	20명미만	20명이상	계
대기업	-	3(10)	8(10)	5(17)	14(63)	30
중견기업	7(26)	8(30)	8(30)	4(14)	-	27
중소기업	51(74)	11(16)	7(10)	-	-	69
계	58(46)	22(18)	23(18)	9(7)	14(11)	126



### 전자업계 Network 형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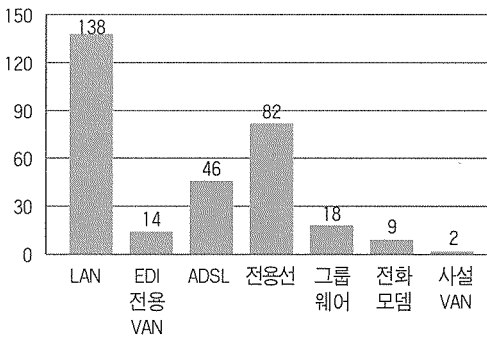
전자업계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Network 형태는 LAN으로서 138개사 66.7%로 나타났으며, 전용선은 82개사 39.6%, 그룹웨어 18개사 8.7%(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추정), ADSL 및 전화모뎀은 각각 46개사(22.2%), 9개사(4.3%)로 나타났다.

최근, 중소기업에서는 굳이 Server없이도 ISP (Internet Service Provider)를 이용 사내 전산화 및 공유를 위해 LAN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.

전자업계 Network 현황

(단위:개사, %)

구분	LAN	EDI전용 VAN	ADSL	전용선	그룹웨어	전화모뎀	사실 VAN
조사결과 (B/A)	66.7	6.8	22.2	39.6	8.7	4.3	1.0
조사업체(A)	207	207	207	207	207	207	207
응답업체(B)	138	14	46	82	18	9	2



### 3. 전자업계의 정보화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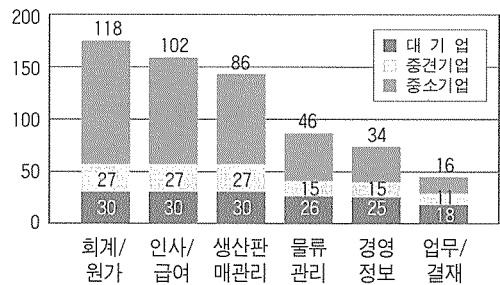
#### 전자업계의 업무전산화 현황

전자업계의 업무전산화가 완료된 부분은 회계/원가분야가 응답업체의 84.5%, 인사/급여 분야가

전자업계의 업무 전산화가 된 분야

(단위:개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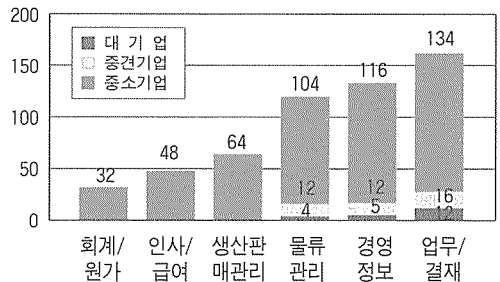
구분	회계/원가	인사/급여	생산/판매관리	물류관리	경영정보	업무/결재
조사결과 (B/A)	84.5	76.8	69.1	42.0	35.7	21.7
조사업체(A)	207	207	207	207	207	207
응답업체(B)	175	159	143	87	74	45



전자업계의 전산화 대상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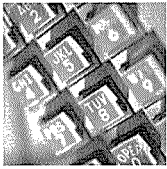
(단위:개사, %)

구분	회계/원가	인사/급여	생산/판매관리	물류관리	경영정보	업무/결재
조사결과 (B/A)	15.5	23.2	30.9	58.0	64.3	78.3
조사업체(A)	207	207	207	207	207	207
응답업체(B)	32	48	64	120	133	16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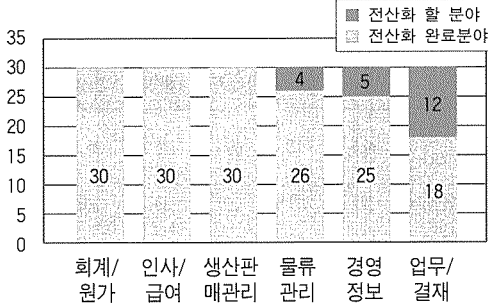
76.8%, 생산/판매관리 분야가 69.1%, 그리고 물류관리 42%, 경영정보 35.7%, 업무/결재 분야가 21.7%순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전자업계가 향후 업무전산화를 추진할 대상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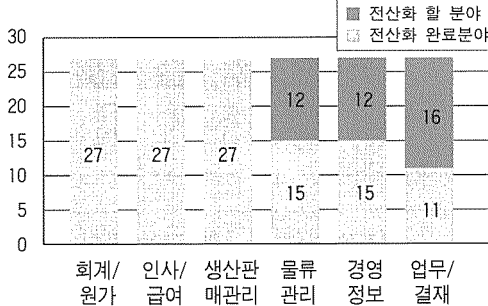


## 전자산업동향 조사보고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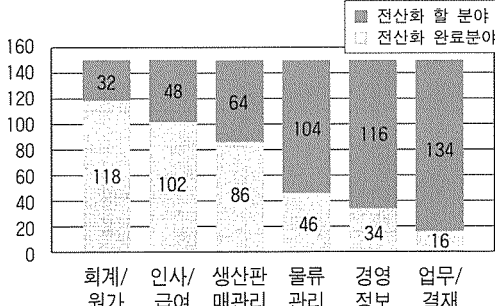
### 대기업의 전산화 현황



### 중견기업의 전산화 현황



### 중소기업의 전산화 현황



야는 상기의 역순으로 업무/결재가 162개사 (78.3%), 경영정보 133개사(64.3%), 물류정보 120개사(58%), 생산/판매관리 분야가 64개사(30.9%) 순으로 나타났다. 이는 지금까지 전산화 분야가 사내 인사/관리/회계 등에 치중한 반면, 향후에는 e-Biz환경에 대응한 전산 구축에 관심을 나타

내는 것으로 사료된다.

기업규모별로 조사해본 결과 대기업의 업무전산화가 완료된 분야는 회계/원가, 인사/급여, 생산/판매관리 등 3개 분야에서는 100%완료되었으며, 물류관리 26개사(86.7%), 경영정보 25개사(83.3%), 업무/결재 분야는 18개사(60%)로 대부분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고, 중견기업도 회계/원가, 인사/급여, 생산/판매관리 분야는 전산화가 100% 이루어졌으며, 향후, 전산화 대상분야는 물류관리 및 경영정보분야가 각각 12개사(44.4%), 업무/결재 분야가 16개사(59.3%)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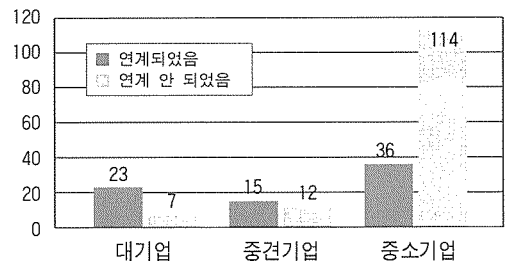
중소기업은 회계/원가, 인사/급여분야가 각각 32개사(21.3%), 48개사(32%)로 향후 전산화 할 대상분야이며, 물류관리 104개사(69.3%), 경영정보 116개사(77.3%), 업무/결재 분야가 134개사(89.3%)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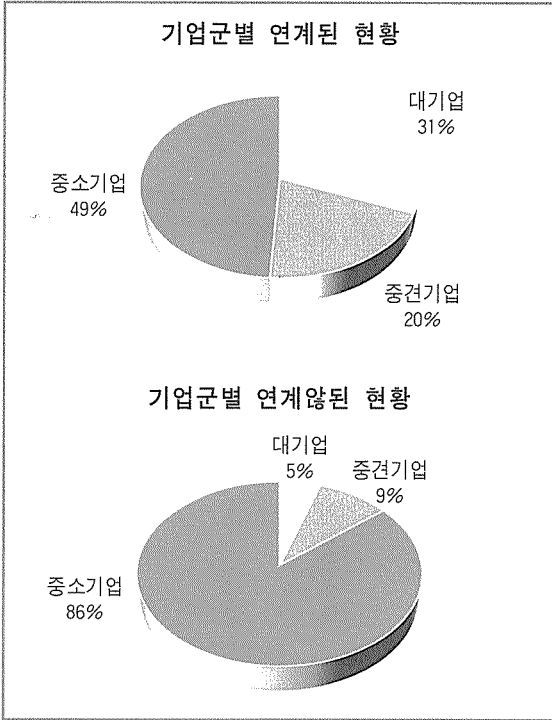
### 외부 시스템(모기업)과의 연계

외부 시스템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는지는 대기업의 경우 연계되었음이 23개사(76.7%), 연계 안되었음이 7개사(23.3%)로 나타나고 있으며, 중견기업은 연계되었음이 15개사(55.6%), 연계 안되었음이 12개사(44.4%)로 중견기업 약 반 정도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냈다.

중소기업은 연계되었음이 36개사(24%)인 반면 연계가 안된 기업이 114개사(76%)로 중소기업은

### 모기업과의 연계현황





현재 On-line보다는 Off-line으로 모기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 이는 앞에서 기업의 전산화 현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소기업의 전산화 정보화 환경이 미흡함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, 시스템 연계의 대부분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기본 인프라로 향후 e-Biz 대응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.

**4.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응키 위한 인프라 구축**

**e-Biz환경을 위한 업계현황**

전자상거래 시대에 대응키 위한 사내의 전산환경을 e-Business체제로 전환키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의 질문에서 일부 되어 있지만 본격적인 e-Biz시점에 준비할 업체는 101개사(48.8%), 자사 여건으로 인하여 준비하지 못할 기업은 48개사(23.3%),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준비하고 싶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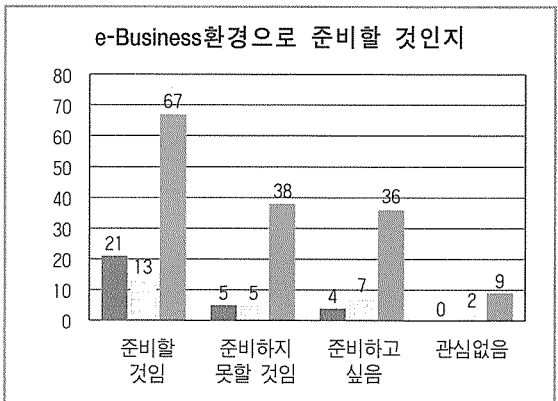
**사내 전산환경은 e-Biz가 가능토록 준비 여부**  
(단위:개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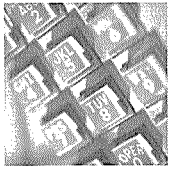
구분	e-Biz시점에 준비할 것임	자사 여건으로 준비하지 못함	정부 지원이 있으면 준비하고 싶음	관심없음
조사결과 (B/A)	48.8	23.3	22.7	5.3
조사업체(A)	207	207	207	207
응답업체(B)	101	48	47	11

기업은 47개사(22.7%), 이외 e-Biz에 대한 관심이 없는 기업은 11개사(5.3%)로 나타났다.

이는 전자업계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산되어 있고, 50%가까이의 기업이 e-Biz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준비한다고 응답하였고, 정부의 정보 인프라 지원 등에 힘입어 준비를 하고 싶은 기업도 23%정도 나타나고 있다.

이중 준비하겠다는 기업중 대기업이 21개사(70%), 중견기업이 13개사(48.1%), 중소기업이 67개사(44.7%) 사정상 준비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기업중 대기업이 5개사(16.7%), 중견기업이 5개사(18.5%), 중소기업이 38개사(25.3%)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준비하고 싶다는 기업중 대기업이 4개사(13.3%), 중견기업이 7개사(25.9%), 중소기업이 36개사(24%)로 나타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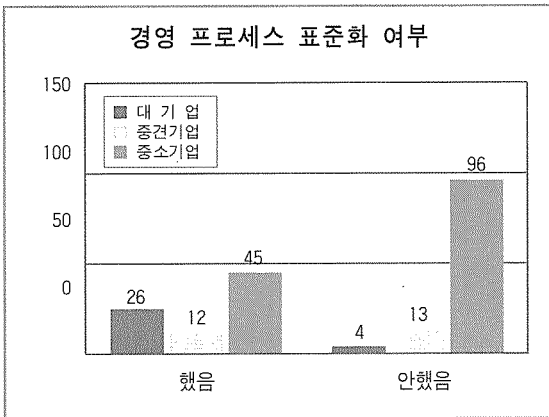


## 전자산업동향 조사보고서

### 경영 Process표준화 여부

외부 시스템(모기업간)과의 거래를 위해 경영 Process를 자체적으로 표준화를 한 기업 중 대기업은 26개사(86.7%), 중견기업이 12개사(48%), 중소기업이 45개사(31.9%)로 나타났으며, 표준화를 하지 않은기업 중 대기업은 4개사(13.3%), 중견기업은 13개사(52%), 중소기업은 96개사(68.1%)로 나타났다.

이를 위해 전자상거래관련 인프라사업인 품목별 표준화 작업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여부는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99개사(47.8%), 불참 및 무응답이 108개사(52.2%)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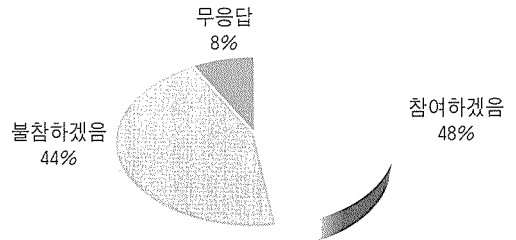


**품목별 표준화 사업에 참여 여부**  
(단위:개사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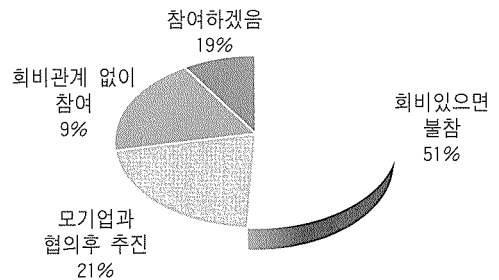
구분	참여 하겠음	불참 하겠음	무응답
조사결과(B/A)	47.8	44.4	7.7
조사업체(A)	207	207	207
응답업체(B)	99	92	16

상기 결과로 볼 때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서는 표준화를 안한기업이 표준화를 한 기업보다 많이 표준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, 대부분 기업의 마인드는 되어진 표준결과를 사용(이용)하

### 품목별 표준화 위원으로 참여 여부



### RosettaNet에서 표준화 정보습득여부



겠다는 수동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.

또한, 글로벌 표준단체인 RosettaNet에 가입하여 거래 Process표준정보 등을 습득할 의향에서도 회비가 있으면 불참하겠다는 기업이 106개사(51%), 모기업과 협의후 추진이 43개사(21%), 회비와 관계없이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19개사(9%), 무조건 참여하겠다는 기업이 39개사(19%)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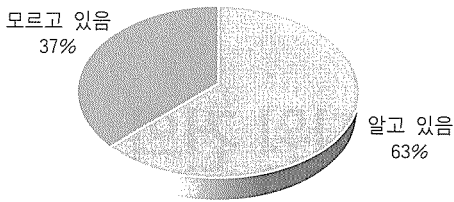
## 5. 전자업계 공동으로 구축한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

### 전자업계 공동 전자상거래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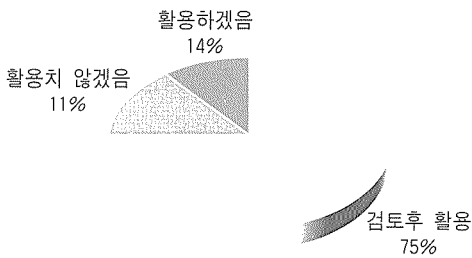
전자업계가 공동으로 구축한 B2B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131개사(63%), 모르고 있다는 기업은 76개사(37%)로 응답하였다.

상기와 같이 동 시스템을 알고 있다는 기업

전자업계 공동시스템을 알고 있는지



전자업계 공동 시스템 활용 여부



(131개사)를 대상으로 시스템 연계와 관련하여 조사해본 결과 연계하여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18개사(14%), 검토후 활용하겠다는 기업이 98개사(75%), 활용치 않겠다는 기업은 15개사(11%)로 나타났다.

6. 동 조사에 따른 결론

본회는 각종 표준화(위)를 확대 운영을 통하여 e-biz 표준에 대한 필요성을 널리홍보함과 동시에 업계와 함께 부품분류, 전자카탈로그, 거래를 위한 Process 표준 등을 국내 단체 표준화 추진하여, 전자업계에게 보급·전파할 예정이며 또한, Global 표준을 위해 해외 관련 단체 및 국내외 Marketplace와도 연계하여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.

